

“F1·여수박람회 예산 확보 나서 달라”

목포~광양 고속도 2785억 등 반영 당부도

박준영 지사,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17일 오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전남 국회의원 7명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각 부처가 전국 시·도별로 신청한 내년 예산 요구서를 삼의,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안 사업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반영시켜야 한다는 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박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344건(8조7332억원)에

이르는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책임지고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F1(포뮬러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건설·운영비 지원과 1년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SOC 확충,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고속 신선 건설,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사업 확충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내년 반드시 추진돼야 할 현안 사업으로, 여수박람회 SOC 사업 중 미반영된 ▲목포~광양 고속도로(2785억) ▲여수국가산단 진입

도로(500억) ▲여수~고흥 연륙·연도교(1348억원) 예산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1000억) ▲무안~여수공항 활주로 확장(1000억) ▲압해~화원간 연결도로(100억)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사업(89억) 등이다.

또 ▲국립속산과학원 종축장 이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의 ▲지상소비세액 배분기준과 관련,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력지수를 반영, 가중치 세분화 ▲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상향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상업용)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

함시켜 과세(취득세, 재산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육성기금(10조원 이상) 조성 ▲‘친환경수산 직접지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가 2개월 전부터 민주당과 일정을 협의, 추진했지만 민주당 소속 11명 의원 중 6명(최인기·김성곤·김효석·박상현·유선호·이낙연)과 김선동(민노)의원만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산업 예산 영남이 호남 2배

영남권에 5066억 편성 김낙성 의원 자료 공개

지경계획부가 지난해 편성한 지역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이 지경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0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 자료를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해 대구·부산·울산·경남·북에 5066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 2499억9200만원에 견줘 2배를 웃돈다. 이외 충청권(대전·충남·충북) 2810억630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747억5500만원, 강원권 758억6900만원, 제주 363억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16개 시·도별로도 영남의 경우 지경부 전체 지역사업 예산(1조3247억3800만원)의 10%를 넘는 1505억6200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국비 혜택을 받았다. 광주는 651억5600만



원, 전남은 1069억2700만원을 받았다. 주요 사업별로는 경남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R&D)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3억3100만원을 지원받는 등 대구 105억3600만원, 경북 131억3900만원, 부산 123억5600만원, 울산 100억8500만원 등 영남 지역이 각각 100억원 이상씩 모두 604억4700만원

을 지원받았다. 반면, 호남권은 광주 127억7100만원, 전남 136억1200만원, 전북 119억4600만원 등 383억2900만원에 그쳤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R&D)사업도 대구(217억원)·경북(201억1000만원)·경남(193억9300만원)이 광주(170억5600만원)·전남(169억7200만원)·전북(191억2800만원)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았다.

또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대구(216억7500만원)·부산(195억원)·경북(79억6800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광주(10억4100만원)나 전남(30억)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한편, 전남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부문:110억2000만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낙성 의원은 “예산규모가 큰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비율을 놓고 보면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상권 지역이 영남을 따라잡고 있다. 지경부의 사업예산 배분에 형평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전남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준영 지사가 도정 현안과 내년 정부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7대 종단 한자리에... 종교간 화합 모색

사회통합위, 상생 토론회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17일 종교간 화합을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중종교 등 우리 나라 7대 종단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상생을 위한 7대 종교간 대화’ 토론회를 열었다.

현 정부 들어 각종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교계와의 마찰로 소통 부재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점을 감안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간 화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종교계 대표들은 현대 다종교 사회에서 폐쇄성과 벽을 허물어야 진정한 대화와 화합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은 “현재는 화해와 일치, 이해와 관용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천주교의 생명, 원불교의 은혜, 유교의 인, 천도교의 성경신, 민중종교의 개벽사상 등은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신적 지향과도 같다”고 말했다.

김희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초 강연에서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대화는 종교 사이의 대화뿐 아니라 민주사회를 떠받치는 근본정신과 대화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이념·가치들과 진지한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어떤 종교의 신자이든 다른 종교에 대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덕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보이는 불타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덕목이 아직 내면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간위탁·재래시장 조례 재의 요구

광주 동구 일부 의원-집행부 갈등

광주 동구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일부 의원과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청장은 최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민간위탁 조례)’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재래시장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3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6인 ‘찬성’, 1인 ‘기권’

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그러나 집행부는 ‘민간위탁 조례’의 경우 구청장의 집행권한 침해, ‘재래시장 조례’는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18일 열리는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안병강 의원은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민간위탁 조례”는 최근 대법원이 유사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고,

‘재래시장 조례’ 또한 중앙정부(중소기업청·행정안전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재의 신청을 비난하며 구청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두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된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한 조례인데, 임시회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재의 요구된 조례안과 관련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G20 서울 국회의장 회의

26개국 참가 내일 개막

세계 주요국 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의 안전을 비롯한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는 G20 서울 국회의장 회의가 19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다홀)에서 개막한다.

주최국인 한국과 국제의회연맹(IPU)을 비롯한 의장 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대리 참석국 12개국 등 모두 26개국이 참가해 ‘공동 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주제로 토론하고 의회 차원의 대치를 모색하는 자리다. /연합뉴스

감사원, 저축은행 부실 1년전 대통령에 보고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후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당시 원장이던 김광식 총리가 대통령에게 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2조6000억원대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만 금감원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확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을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